화살

1959년 6월 상반호(103)

미제는 조선 인민의 천추만대의 원쑤다

당장 물러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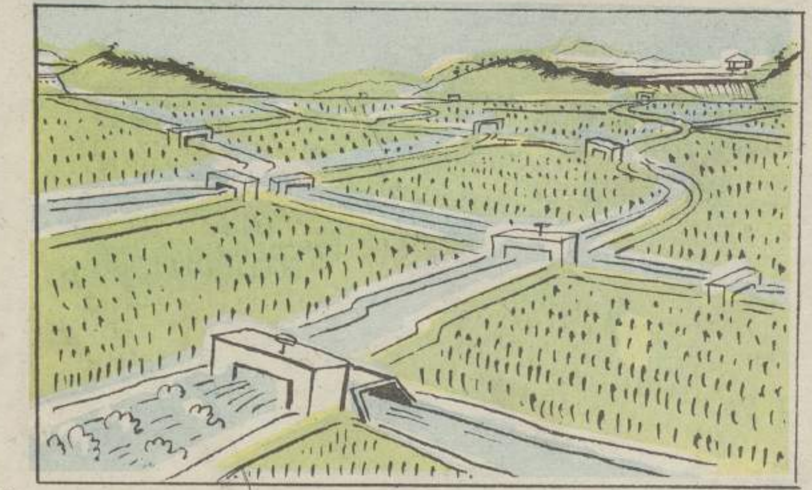
백 인균 그림

3 - AUG - 9
Copy ____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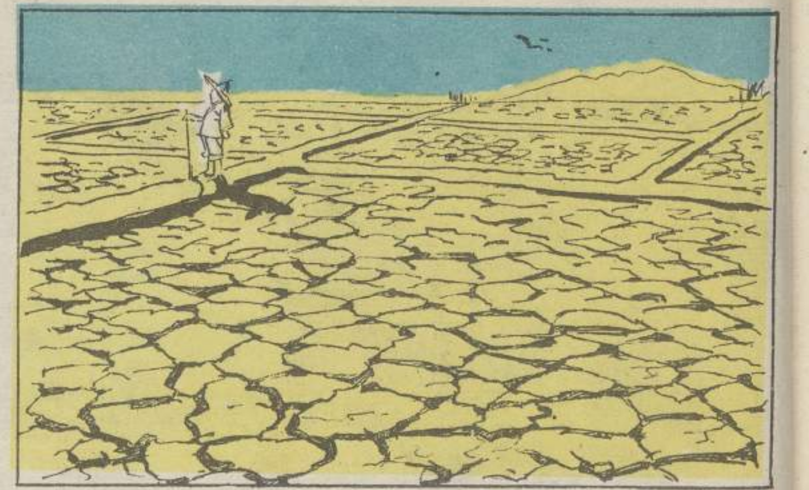
력사적인 승리

홍 종호 그림

같은 땅이건만



북반부



남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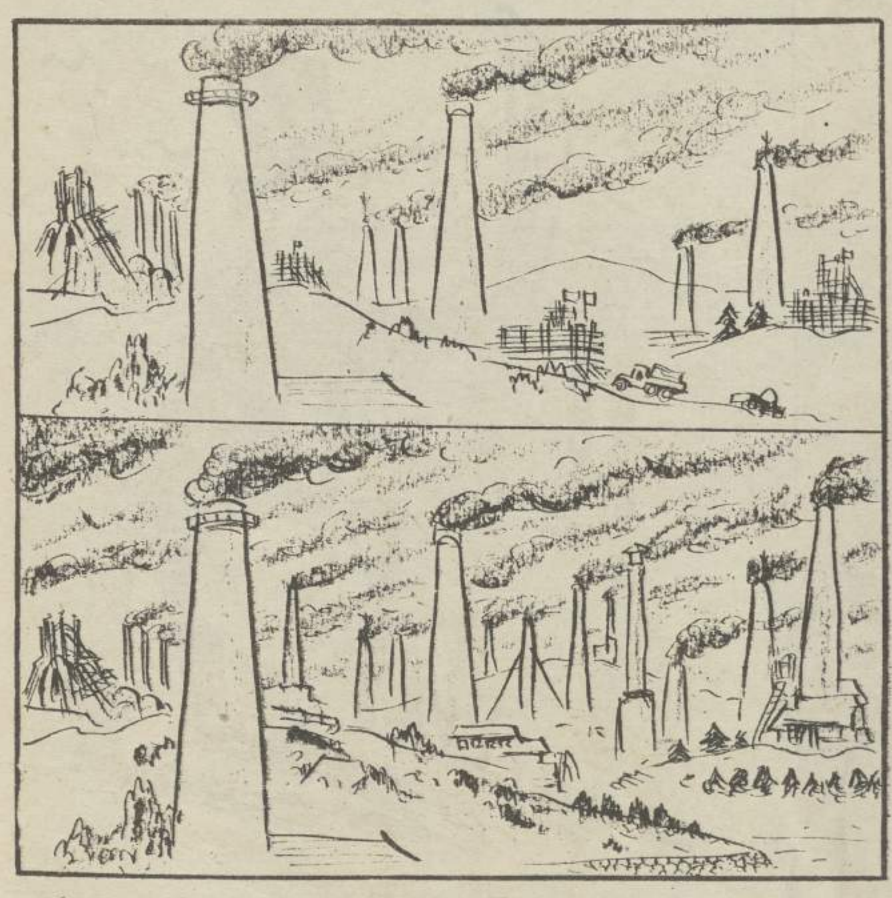
허 능택 그림

기계가 새끼를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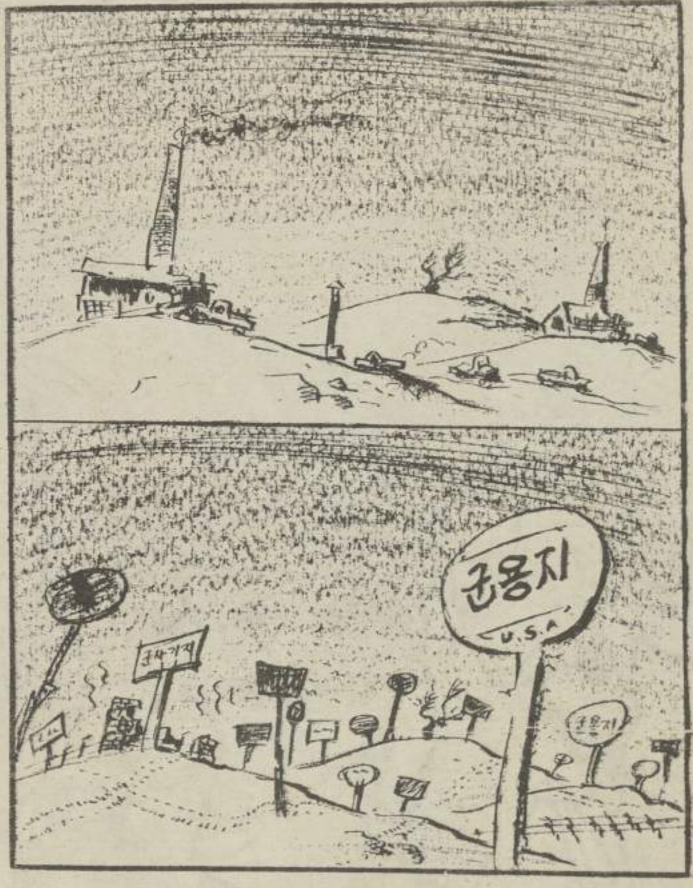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새로 늘었다

백 인균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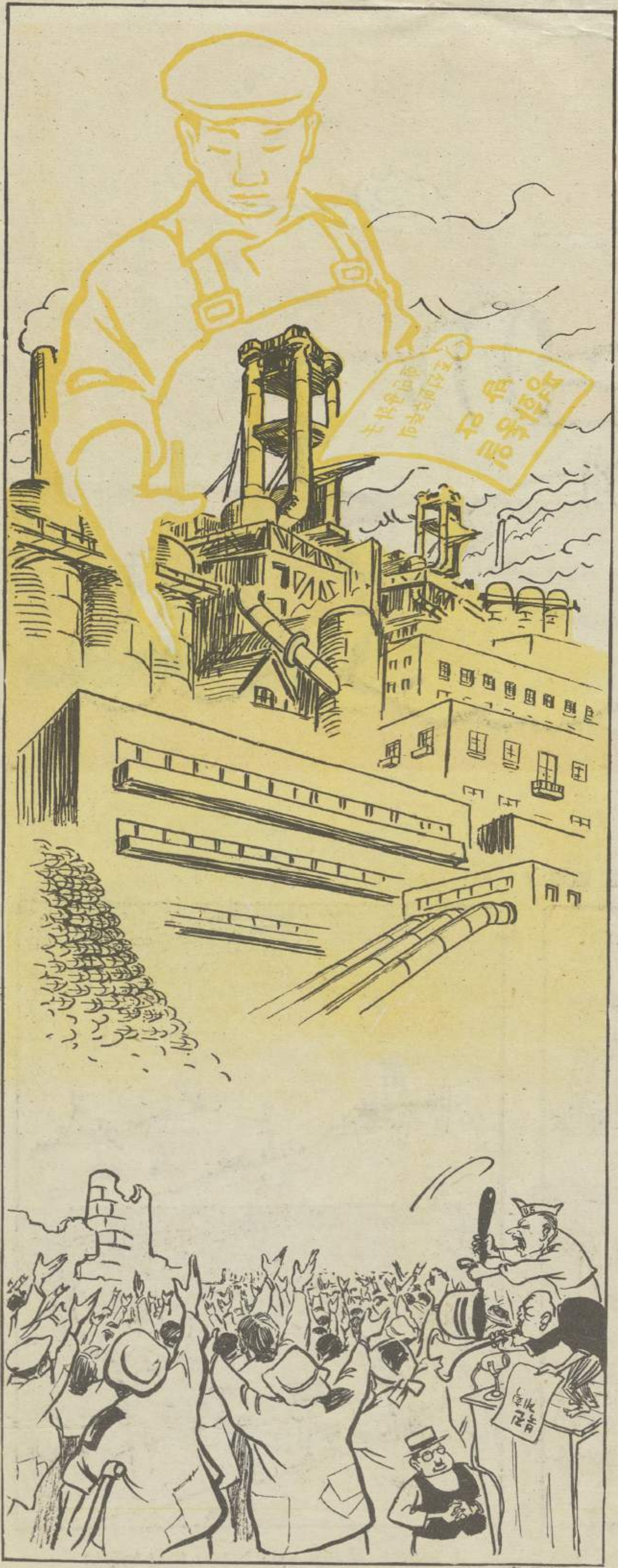


북반부—각 군마다 공장들이 새로 늘고



남반부—도처에 군사 기지가 더욱 늘었다

막을 수 없는 조선 인민의 목소리



홍 종호 그림

영양제

최 영근 그림

남조선에 남아 있는 《자유》

박 승히 그림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로 선택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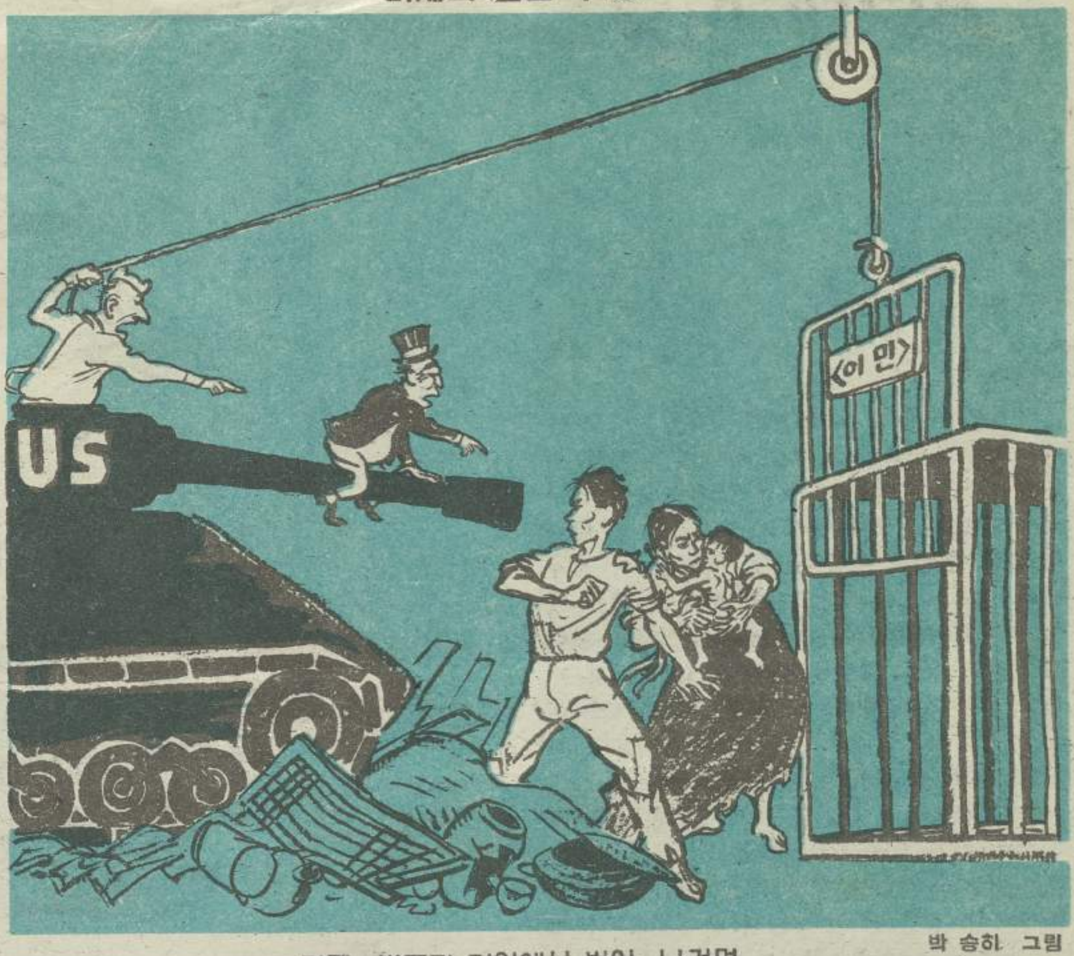
남조선에 생긴 《작은 미국들》

남조선에 생긴 《작은 미국들》에 대하여 《뉴욕 타임스》지는 쓴 바가 있다. 그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사용하게 될》 새로운 미국인 주택들은 한국인들로부터 격리된 철조망을 둘러친 안에 건설된다. 허가 받지 못한 방문자들은 보초들이 들여 놓지 않을 것이므로 미국인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특별 통행증을 갖지 않는 한 보통 《한국》사람들은 이 구역에 드나들 수도 없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계속하여 쓰기를 《그들의 대다수는 미국 도시의 교외 주택을 모방한 리태원 주택 지구에 살고 있다. 이 서방식 주택들은 한국 정부가 서울시의 가장 비참한 빈민굴의 일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언덕 우에 특히 미국인들을 위하여 지은 것이다.》라고 했다.

미국인들이 《작은 미국들》이라고 부르는 철조망을 둘러 치고 보초를 세운 이 주택 구역 안에는 남조선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중앙 난방 (증기 난방)을 갖추었으며, 남조선 전기 형편이 극심히 곤난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상 사소한 일에까지 전기화되여 있다. 그뿐 아니라, 이 《작은 미국들》의 안에서는 《한국》의 관세를 물지 않고 들어 오는 미국 상품들을 파는 상점을 따로 가지고 있으며 이 안에서 일어 나는 일체의 문제에 대하여 한국 정부 관리들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

미제의 《난민 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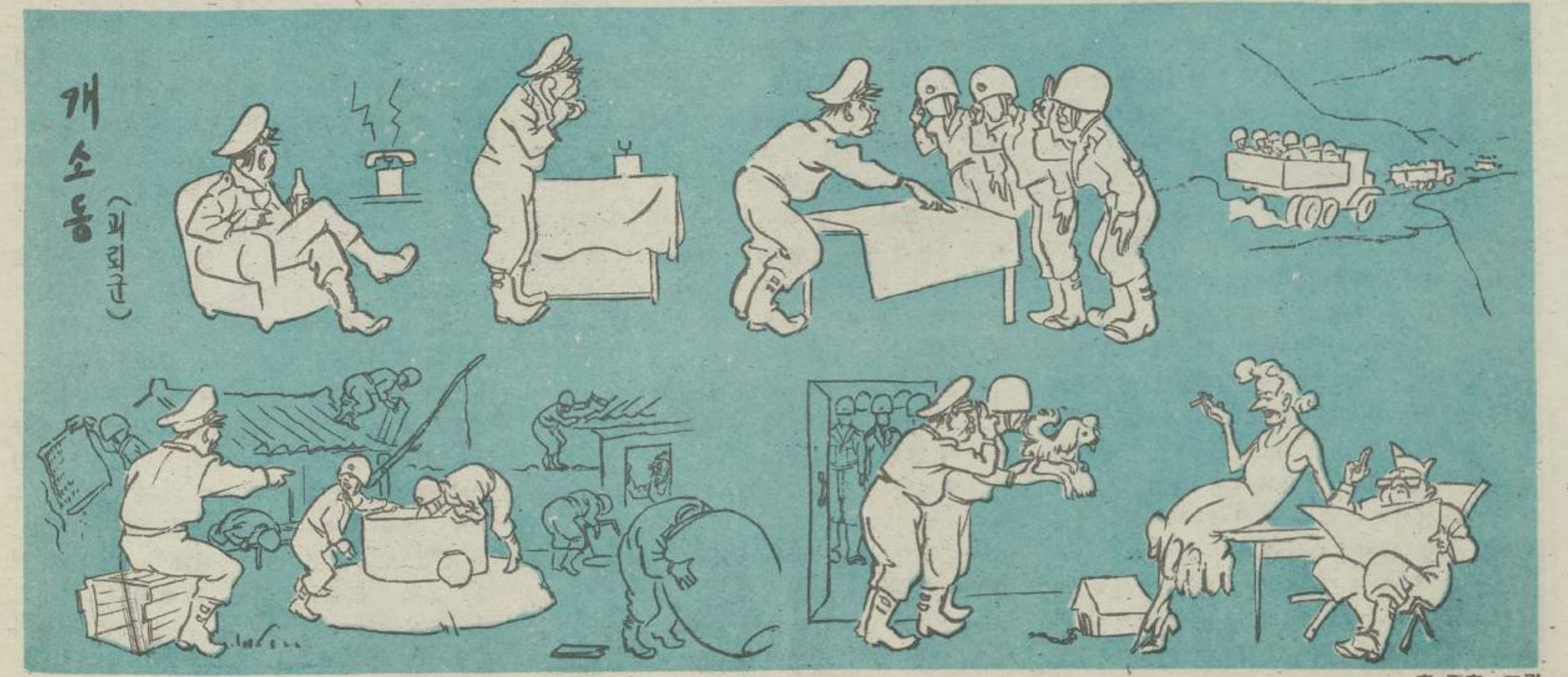


박 승히 그림

미제—빈궁과 기아에서 벗어 나려면 저리로 들어 가시오

이런 《작은 미국들》은 서울, 부산, 대구 및 진해에 있다.

《뉴욕 타임스》지는 《한국인들은 격리된 미국땅이 형성되는 데 대하여 적의를 품고 있다. 이것은 인종적으로 가까운 일본과 비률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면서 《한국 관리》들은 《미국 군사 및 경제 기관들이 이곳에 항구적으로 머물게 된다는 것을 자기들과 자기네 정부는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미국인들의 존재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담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썼다.



홍 종호 그림

경무대 이문

류 계환

《여보게! 자네 4월 15일 경무대에서 《대통령》의 기자 회견 소식을 들었나? 서울 신문 보구 알구 있다구, 그럼 아직 깜깜이군, 경무대에 먹장 같은 흑막이 드리워 있다는 것은 자네두 알지 않나, 그 흑막은 신문에는 안 나거든.

얘기할게 들어 보게, 참 기막힌 얘길세

아침에 〈공보실〉에서 신문사에 전화가 왔는데 〈대통령〉이 경무대에서 기자들을 만나겠다지 않아. 모두 놀랐네. 〈대통령〉의 기자 회견은 3년만에 처음이거든, 재재작년 〈정부통령 선거〉 이래 정례 기자 회견은 걷어 치웠으니까. 그리고는 그 늙은 것이 3년 동안 경무대와 진해 별장에 파묻혀 있었단 말야. 말하자면 그 안에서 두더지 정치를 해 온 셈이지.

왜 그 안에 백여서 안 나오느냐구?

글쎄 나도 그 얘길세. 여기 대해 항간에는 구구하게 억측들이 떠 돌고 있네만 〈한국〉 실정도 딱하게 됐지. 어딜 가나 아우성뿐이니까 말일세. 국민들의 아우성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요새는 〈의사당〉과 〈자유당〉파 지어 군부 안에서까지 파벌 싸움이 심해져서 경무대가 흔들릴 지경으로 온통 야단 법석이니 왜 가슴이 조여 들지 않겠나. 듣자니 늙은 것이 단단히 겁에 질린 모양이데.

일전에 〈대통령〉 운전수가 내 친구더러 직업을 바꾸었으면 좋겠다구 울상을 하드래. 왜 그러느냐구 물었더니 〈대통령〉과 같이 다니는게 무서워졌다지 않아. 한 번 진해 별장엘 갔을 때 일인데 헐 벗은 군중들이 연도에서 발을 멈추고 그의 행렬을 바라보는게 금시에 달려 들것만 같더라는군. 운전수는 저도 모르게 전신에 소름이 끼쳤는데 뒤에서 〈대통령〉이 창에 카텐을 치라더래. 그래 운전대의 거울을 들여다 봤더니 글쎄 그 늙은 것이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지 않아. 그 후부터는 진해 별장이나 미국 대사관 같은데 갈 땐 의례이 창에 카텐을 친다는군.

그런데 그 늙은 것이 기자들을 또 대단히 싫어 하거든.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들을 만나겠다고 통고해 왔거든, 기자들이 의아해 한 것도 당연하지. 얘긴 이제부턴데 그날 회견이 참 가관이였네. 응접실에서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자니 〈대통령〉이 〈공보실장〉을 대동하고 방안에 들어 오데. 〈대통령〉은 지팽이를 쥐고 있드군. 그 지팽이는 로쇠한 그를 위해 백악관에서 특별 선물로 보내 온 것이라는데 지팽이에 의지한 〈대통령〉은 중풍 환자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데.

그런데 방에 들어 와서 뭐라구 그런줄 아나? 지팽이를 짚고 서서 우릴 물끄럭이 바라보더니 〈공보실장〉을 돌아 보면서 묻지 않겠나.

—이 사람들이 모두 웬 사람들이야?

〈공보실장〉이 공손히 허리를 굽히고 대답을 하니까 이번에는

—뭘하러 왔어?

다시 되묻지 않겠나, 우린 웃음이 나오는 걸 억지로 참았네.

—각하께서 지금 기자 회견 석상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무어라고 말해야 할지 공보실장 자네가 얘길 해 봐!

늙은 것은 의자에 주저 앉고 〈공보실장〉이 나서서 기자 회견을 하였네. 취지는 리승만이가 명년 〈대통령〉 선거에 또 출마하기로 했다는 걸세. 그러면서 〈공보실장〉은 이 출마는 그 령감의 본의에서가 아니라 국민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지 않아. 그제사 우리는 3년간 중단됐던 기자 회견을 다시 소집한 리유를 알았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일어 났단 말야. 〈공보실장〉의 담화가 번역되자 한 외국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

—공보실장 말씀은 알만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국민은 아무도 리 대통령의 출마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금시 〈대통령〉의 얼굴이 퍼렇게 질리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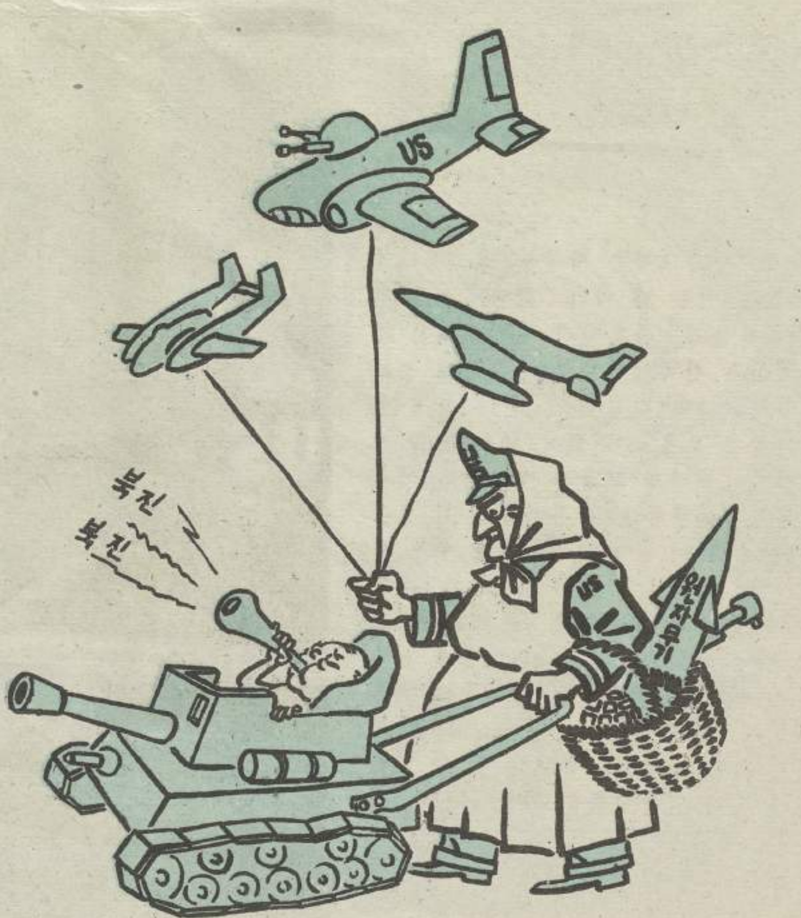
—신문이 나를 몰아 내려고 하는군, 공보실장이 일을 어떻게 했어!

〈공보실장〉은 허리를 굽신하더니 기자들을 향해 하는 말이 국민이 요청하도록 마련이 다 돼 있으니 요청한거나 다름 없다면서 기자 회견을 끝내겠다고 하더군. 기자 회견의 내막은 실상은 이렇네.

후에 들려온 말에 의하면 〈대통령〉은 그 길로 자기 방에 들어 가서 문을 잠그고 하루 종일 나오지를 않았다데. 그는 침대에 누워서 그가 세번째 〈대통령》 출마를 하면 3년 전 일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2만 명의 군중이 경무대 앞에 운집하여 소요를 일으켰을 때 일 말야. 그 때 그는 얼마나 질겁을 했던지 얼김에 애리스의 치마자락으로 기여 들었다고 하데. 그 며칠 후에 선거가 있었는데 경찰 측으로부터 새여 나온 정보에 의하면 그가 얻은 표는 실제에 있어서는 이미 죽은 리 승만의 경쟁자보다도 적었는데 그걸 52%로 만들어 당선을 조작해 내노라고 경찰이 그야말로 고심참담했다는군 그래. 이게 모두 3년 전 일이거든. 지금은 그 때보다 정세가 형편 없이 더 악화됐거든. 그러니 출마는 했어도 큰 두룽거리지.

요즘 애리스는 전보다도 빈번히 반도 호텔 출입을 한다지 않아. 왜 거기 가느냐구? 애리스는 보석 상인이거든, 하기야 팔지는 않고 사 들이기만 하는 상인이지만 아마 한국의 보석은 모두 애리스의 손에 들어 갔을 걸세. 그걸 몽땅 미국 은행에 예치하거든. 〈대통령〉이 잘못되면 애리스가 믿을게 뭔가. 보석 밖에 더 있나, 그래서 그러는거지, 이건 다 리 승만이가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징조라네.〉

그 에미에 그 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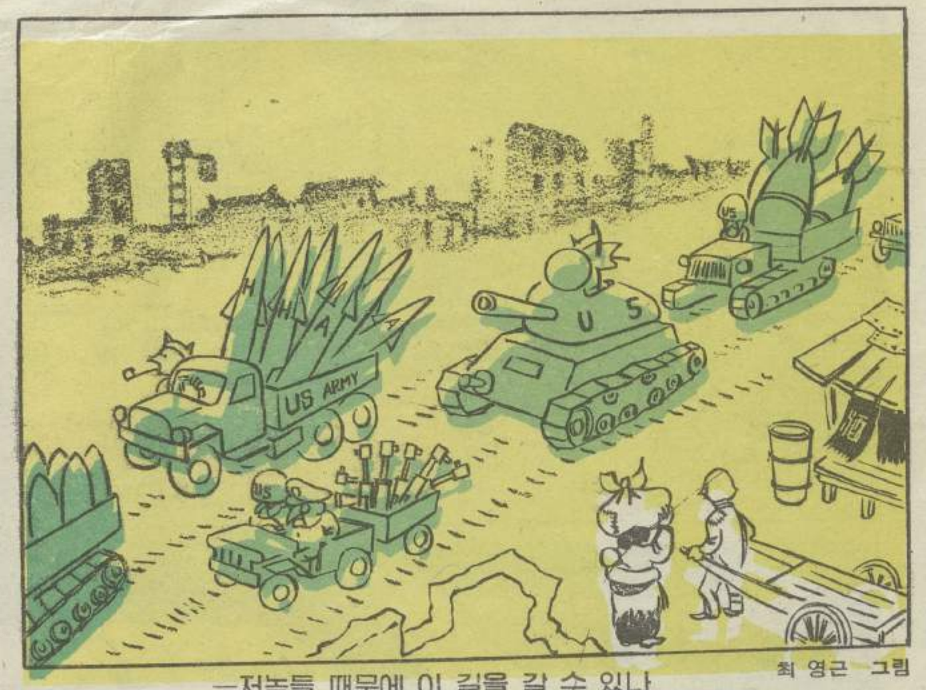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이새끼 장난에는 항상 내가 이렇게 돌봐 줘야 하니까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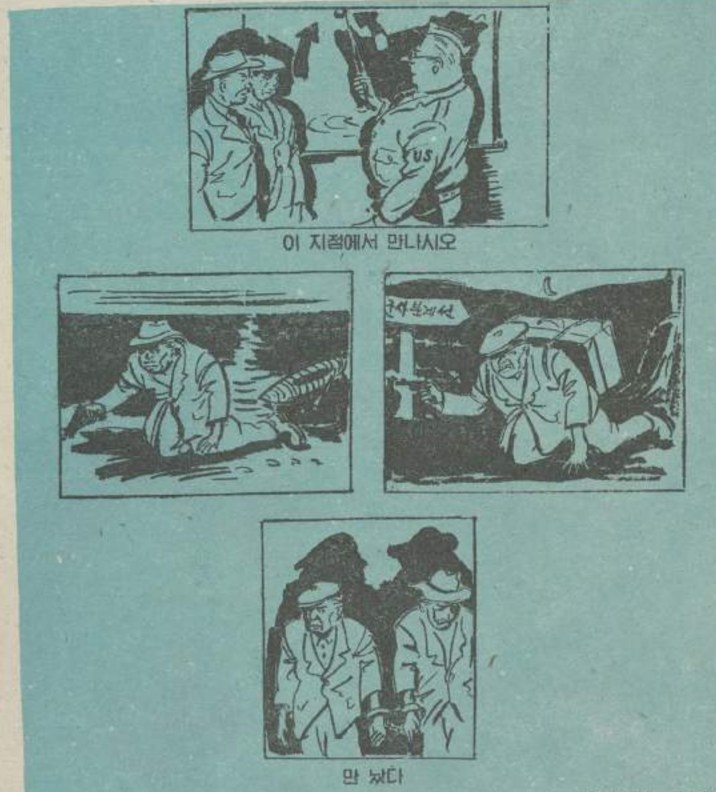
조 영식 그림

길을 막는 자들



최 영근 그림

—저놈들 때문에 이 길을 갈 수 있나
—이 길 뿐인가요 평화 통일의 길도 막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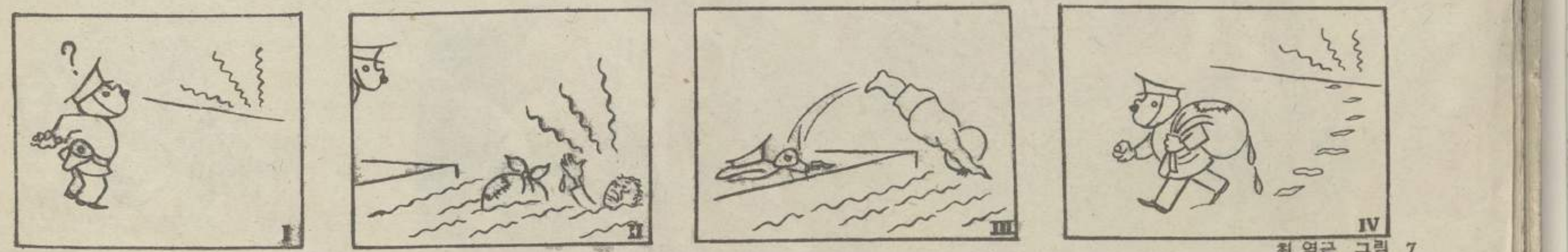


이 지점에서 만나시오

만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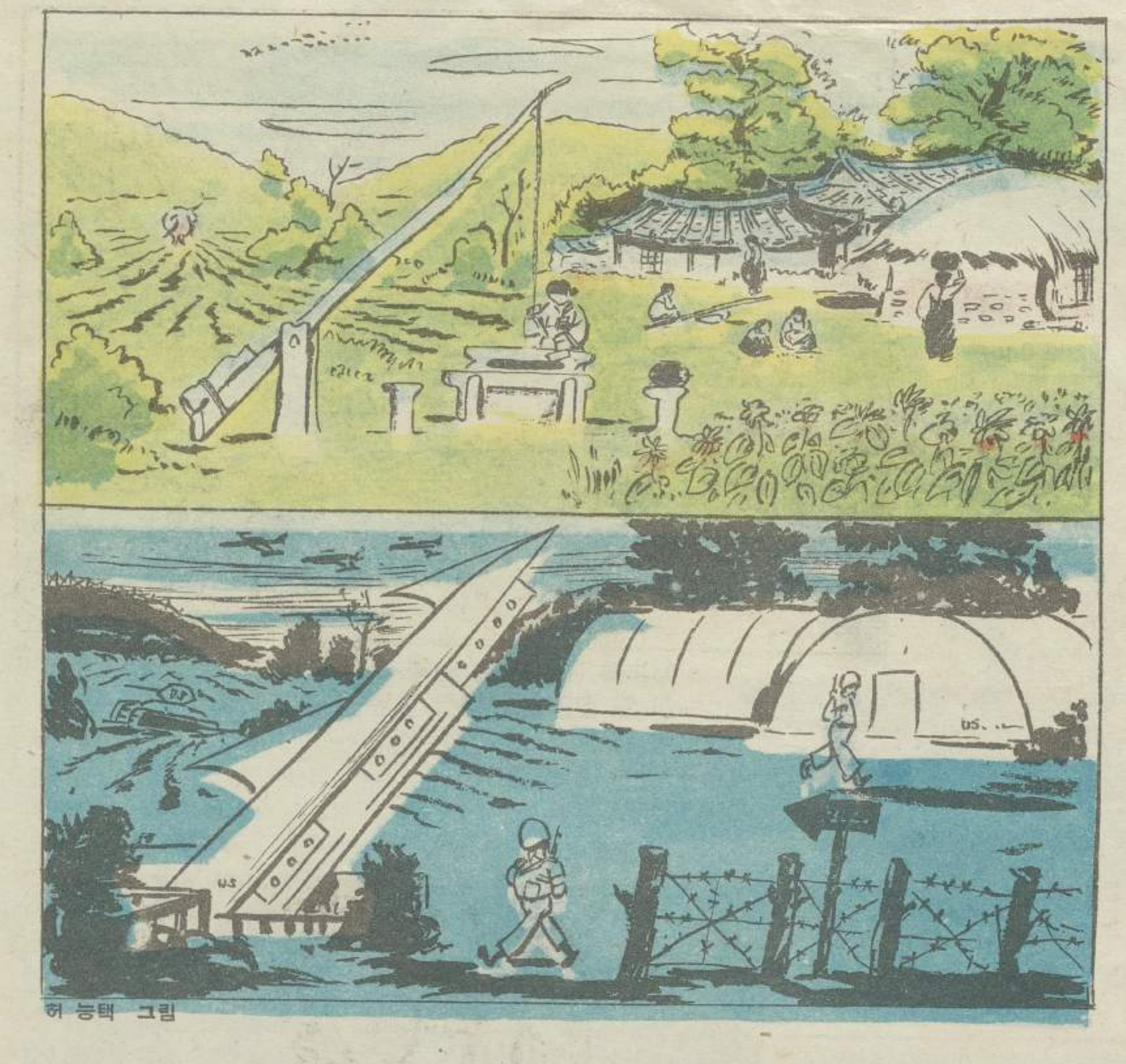
허 능럭 그림

건졌다 —남조선 경찰일기—



최 영근 그림

고향이 변했다



허 능택 그림

사 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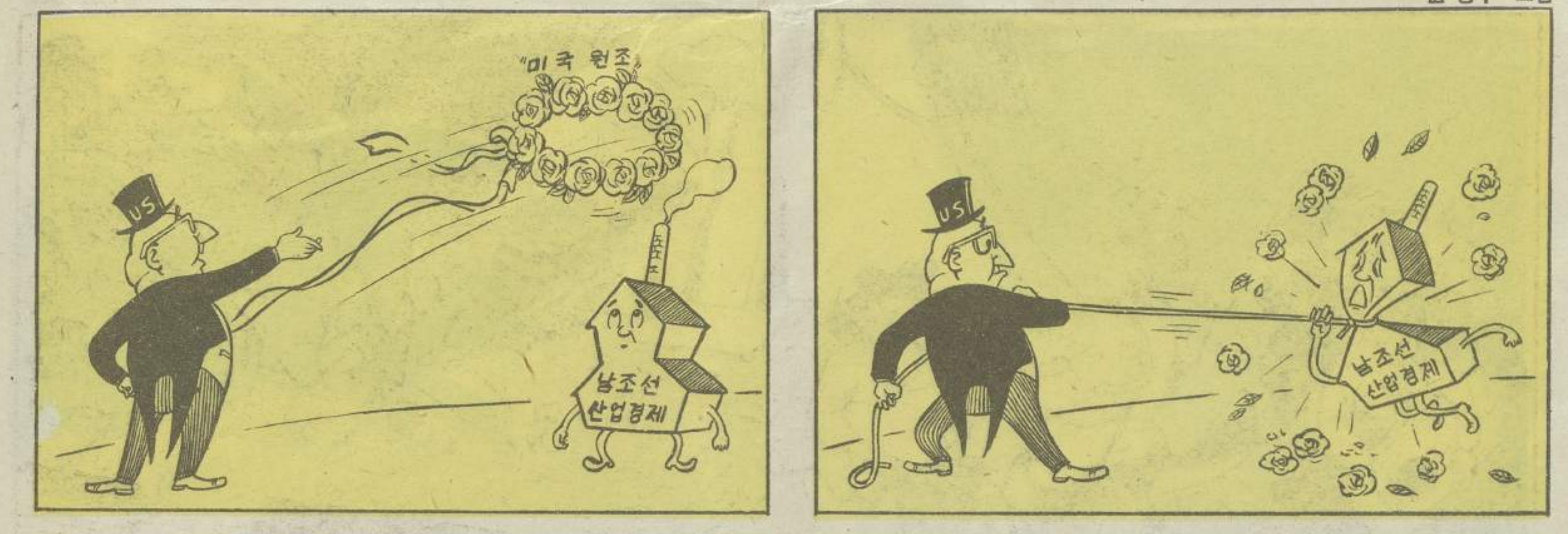
백 인규 그림

빚쟁이 소동

허 능택 그림

《화려한 선물》

원 광수 그림



배격 받는 미제

홍 우만

미국 공보원 원장 죠지·애론은 뉴욕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금년부터 미국은 종전보다 《군사를 적게 말하고 문화를 많이 말하며 우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식으로 대외 선전 방법을 변경시키고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 공보원이라면 다 아는 바와 같이 악명 높은 《미국의 소리》방송을 비롯한 미국 정부의 모든 대외 선전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 미친듯이 전쟁 히스테리를 조성하며 인민들 사이에 불화를 고취하며 썩어빠진 미국식 《생활 양식》을 찬양하는 것을 그의 본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미국 공보원 원장이 지금에 와서 갑자기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문화》니 《우정》이니 하고 새삼스럽게 떠들어대게 된데는 그만한 리유가 있다.

한 마디로 말하여 미국의 전쟁 공갈과 군사 간섭 정책은 오늘 세계 도처에서 인민들의 지긋지긋한 실증과 증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은 비단 아세아, 아프리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뒤'마당》으로 불리우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지어는 서구라파의 미국 《동맹국》들에서도 날로 드높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이전 주쏘 미국 대사 케난까지도 작년 10월에 발표한 자기의 글에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증오 받는 나라》로 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형편에서 미국 지배층은,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이미 여지 없이 들어난 제놈의 피묻은 이'발을 감추어 보려는 승냥이처럼 그럴듯한 미사려구로써 자신을 가장하여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인민들은 미국 관리들이 선전하고 있는 《문화》니 《우정》이니 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평론가이며 콜롬비아 대학 교수인 라몬트가 금년 초에 출판한 소책자 《미국을 위한 평화 계획》에 의하면 미국은 현재 지구상 이곳 저곳에 9백 50 개에 달하는 군사 기지들을 만들어 놓았으며 여기에 도합 1백만 명 이상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것들이 《문화》를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들이 그곳 사람들에 대한 자기들의 《우정》의 표시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 군사 기지들과 군사 인원들이 지구상에 아직 남아 있는 가장 락후하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잔인하고 가장 추악한 모든 것들을 규합하고 비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또한 그것들이 모든 선진적인 것, 인민적인 것, 민주주의적인 것들을 말살하려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치 않다.

미국은 장 개석과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대만의 장 개석 도당을 유지하기 위하여 20억 딸라를 탕진하면서 거의 10년간이나 중국 인민을 반대하는 도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남조선의 리 승만 피뢰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하고 있다.

더구나 미국이 그처럼 《우정》을 주고 있는 자들이 례외 없이 모두가 그 나라 인민들의 반역자이며 매국노이며 불구 대천의 원쑤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결코 우연한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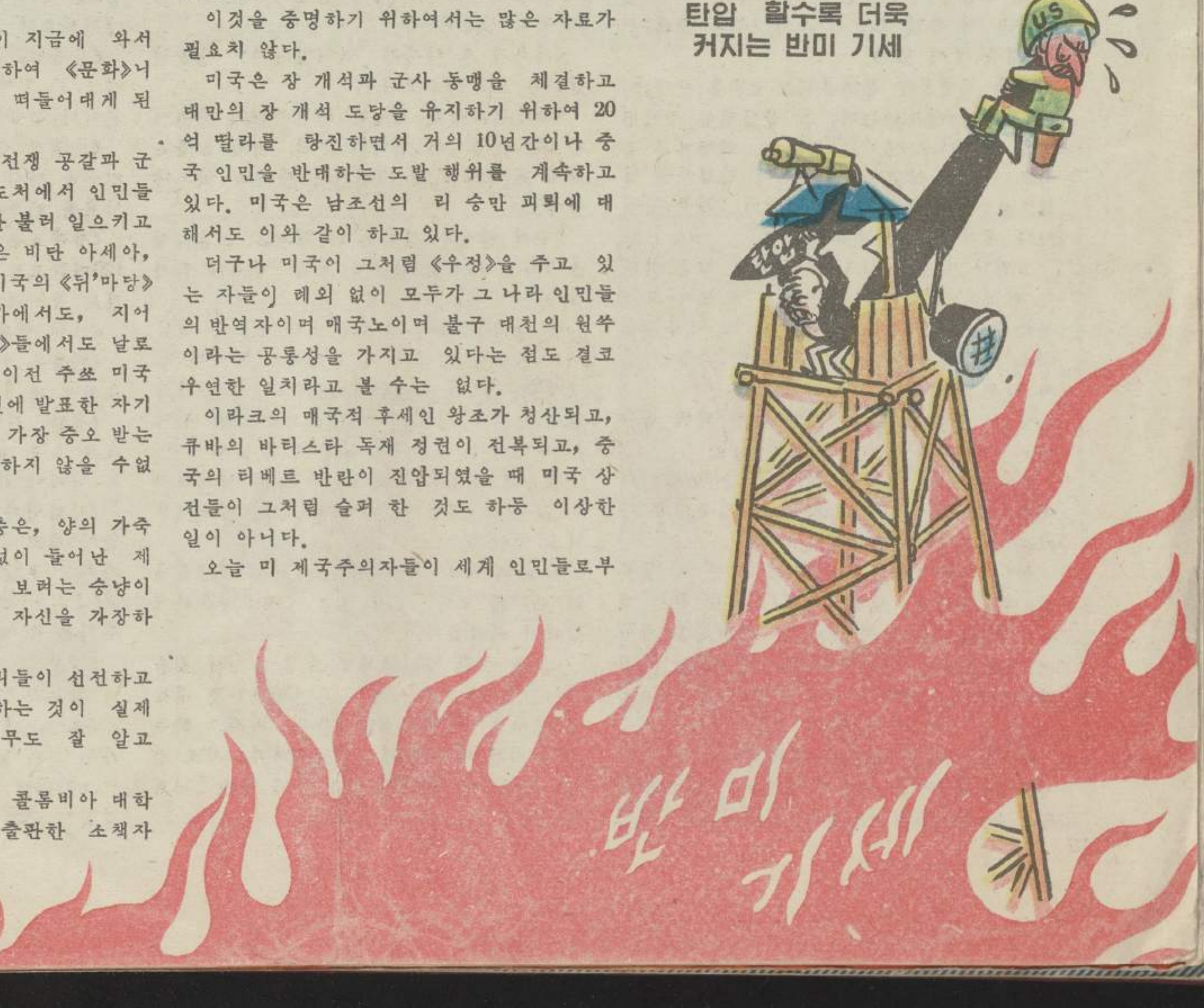
이라크의 매국적 후세인 왕조가 청산되고, 큐바의 바티스타 독재 정권이 전복되고, 중국의 티베트 반란이 진압되였을 때 미국 상전들이 그처럼 슬퍼 한 것도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늘 미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인민들로부터 증오와 배격 이외 다른 무엇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작년 5월에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이 돌맹이로 남미주를 《친선 방문》한 미국 부대통령 닉슨의 골통을 깐 것도, 금년 5월에 일본 어선 220 척이 포격 련습에 동원된 미국 군함을 포위한 것도 인민들이 자기 생활을 통하여 지은 결론의 한 표현이다.

오늘날 미국의 대외 선전이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변경되든지간에 그의 악독한 본질을 알고 있는 인민들은 그에 결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이 이르는 그곳 마다에서는 《미제는 돌아 가라》는 목소리가 더욱 힘차게, 더욱 단호히 울려 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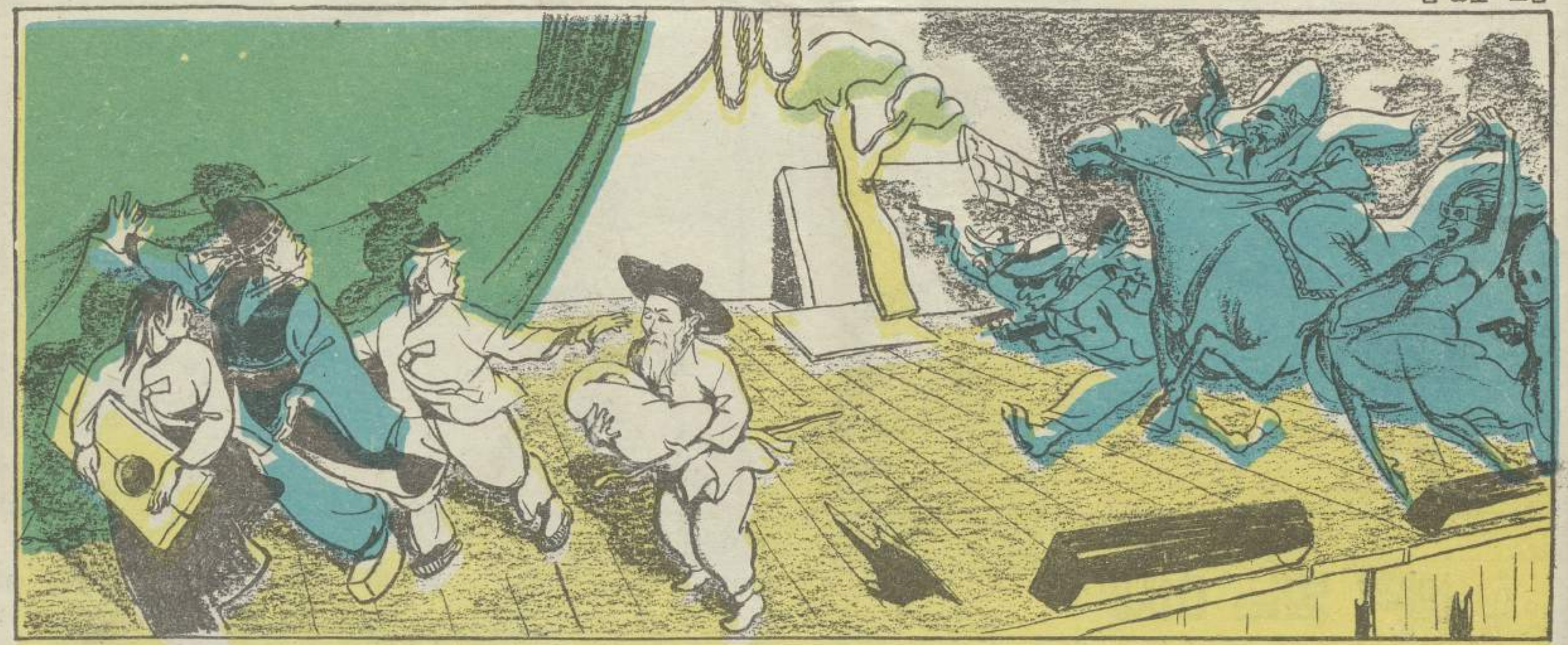
탄압 할수록 더욱 커지는 반미 기세



최 영근 그림

남조선 무대에서 쫓겨나는 민족 문화

홍 종호 그림



부흥 주택 사건

김 창선

남조선에서 날로 우심해 가는 것 중의 하나가 주택난이다. 거리마다 홍수처럼 범람하는 실업자들이나 기아 임금마저 제때에 받지 못해 기아에 허덕이는 로동자들의 주택에 대해서는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다. 중소 상공업자들까지도 판자집이나마 한간 마련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형편이다.

이 혹심한 주택난을 기화로 거기서 한 몫 보자고 리 승만 도당은 소위 《부흥 주택》이란 것을 꾸며 냈다.

서울 서대문구 통제동에는 《부흥 주택》이란 것들이 생겨났는데, 그 살인적인 주택난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들려는 희망자가 좀체로 나서지 않았다. 총감투에 먹칠하듯 날림으로 지은 막커리 집 한 채에 120만 환씩이나 내라고 하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십년 기한으로 월부로 집을 판다는 미끼에 걸려서 통제동으로 집 보러 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대부분이 중소 상공업자들이다. 그리하여 가끔 다음과 같은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중년 부부가 함께 집들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서, 마누라가 질색을 했다.

《에그, 이걸 다 집이라고 120만환씩이나 내라나요. 벌써 비가 새지요, 집들이를 하기도 전에 많이 떨어졌지요…》

《여보 마누라, 그러지 말고 한 채 골라 잡도록 합시다. 외상이라면 소라도 잡아 먹는다는 속담도 있지 않소?! 120만환을 십년에 쪼개면 한 해에 12만환이고 한 달엔 만환씩이니까, 어떻게 좀 무리를 해서라도…》

《집이 어디 십년 가겠나요!》

《좌우간 일곱 식구나 데리고 조카네 단간방에 더부살이를 하노라니 그게 어디 쉬운 일이요. 하루 이틀이라도 모르겠는데 벌써 2년째니…》

이러한 처지의 사람들이 《부흥 주택》에 들기 시작하여 거의 다 차자, 하루는 《주택 영단》에서 검은테 안경을 쓴 사내가 나와서 사람들을 모아 놓았다.

《에또, 오늘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겠습니다. 이제 계약서를 드릴 테니까 여기 다 각기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받아 읽어 보자 모두 눈이 둥굴해졌고, 자리가 떠들석해졌다.

《어랍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집값은 120만환이라고 하더니 여기엔 240만환이라고 적혀 있으니…》

《게다가 또 리자가 년 1할이라! 생눈알 뽑자는 수작이로구나!》

《뭐, 뭐, 상환 기일은 10년이라고 하더니만 5년에 물어야 한다?! 주택 영단 놈들은 대체 혀'바닥을 몇 개씩이나 가지고 있느냐 말야?!》

《주택 영단》 직원은 《여러분, 조용하십쇼.》하고 좌석을 정돈해 보려 했으나 허사였다.

한 달에 만환씩 십년간 내면 된다는 타산으로 들었던 집인데 이 계약대로 한다면 한 달에 꼬박꼬박 2만환씩 바쳐도 겨우 리자 밖에 안되고 집값은 그냥 빚으로 남게 된다는 수작이니 격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검은테 안경은 공기가 차츰 더 험악해지는 걸 보고 어림어림하다가 그만 뺑소니를 치고 말았다.

며칠 후부터 《주택 영단》에서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지 않고 개별 방문해서 달래기 시작했다.

《그새 우리 영단에서도 많이 토의해 봤습니다마는 주택을 사신 분은 120만환을 내겠다 하시고 우리는 240만환을 내라고 하는데서 의견 차이가 생긴 것이니까, 서로 반씩 양보해서 180만환으로 하면 좋을 거라구…》

이런 말에 응하는 사람은 없었다.

《여보쇼, 집값이 120만환이라고 한 건 우리가 아니고 영단이요. 서대문 장마당의 녀마장수도 이렇게 너절하게 흥정하러 들지는 않소. 모집 당시의 조건이 아니고서는 계약할 수 없으니 그런 너절한 이야기나 하려거든 아예 발'길도 하지 마시오.》

하고 문을 쾅 닫아 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부흥 주택 분규》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오래 끌게 되였다.

하루는 《주택 영단》 리사장이 《부흥부 장관》을 찾아가 이 문제를 놓고 오래 동안 이야기했으나 묘안이 나서지 않았다.

《장관님, 거참 난처합니다. 모두가 계획대로 다 되여 가다가 마지막판에 돈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졌으니…》

《그렇게 속단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 조건들을 다시 따져 보구서 양보할 건 더러 양보를 하드래도 흥정을 해 봅시다.》

《첫째로는 모집 당시의 가격대로 집값을 120만환으로 하라는 건데 그래서는 리'속이 없는 장사가 되겠고》

《그야 물론 못꺾지…》

《다음은 리자를 없애라는 요군데 조금 양보해서 년 8부로 해 주마 할 수도…》

《상환 기일을 10년으로 해 달라는 것이 세째 요구 조건 안요. 기왕 리자도 받아 먹는 바에야 10년으로 해 주면 되지 않어.》

《아닙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마는 그 집들이 결코 10년은 가기 어렵습니다. 10년 가지도 못할 집을 10년간 년부로 팔았다가 뒤'일은 어떻게 하려구요. 결국 강권을 발동하는 수 밖에 없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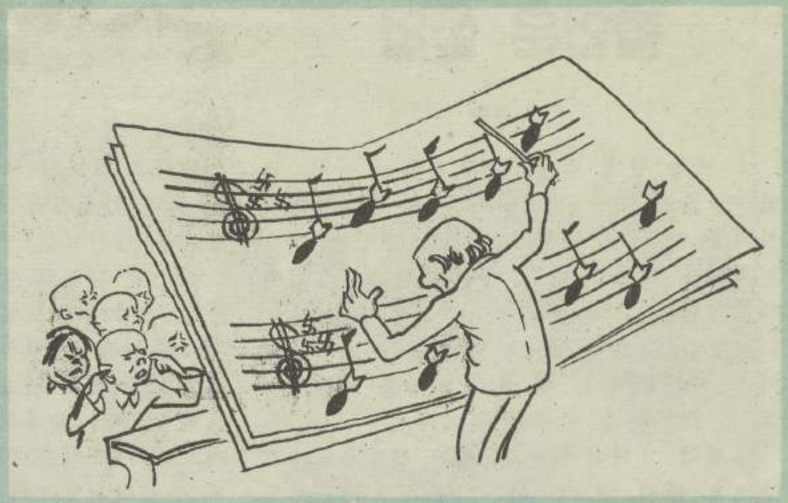
《경찰 말이지요? 내무부 장관이 뭐라고나 할는지?》

《그야, 내무부 장관 어른 한테도 한 몫가는 것이 있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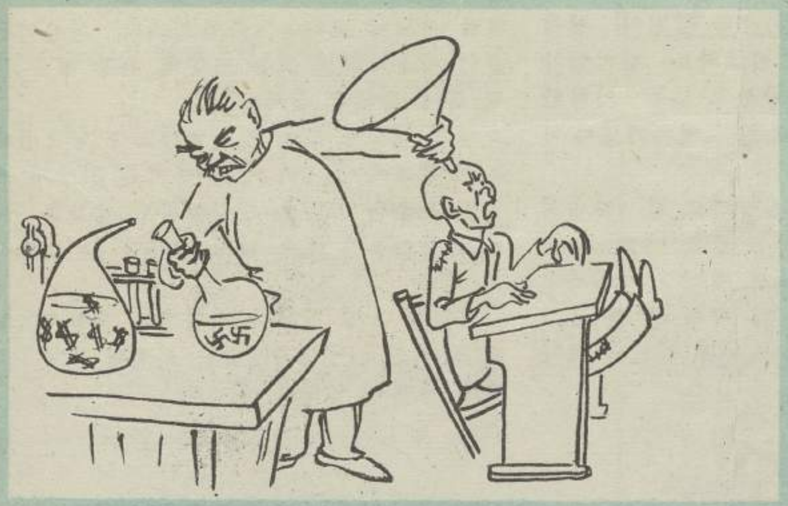
그리하여 통제동 《부흥 주택》 사건에는 경찰이 끼여 들게 되였다.

미제의 교육 정책

《도의 교육》



《정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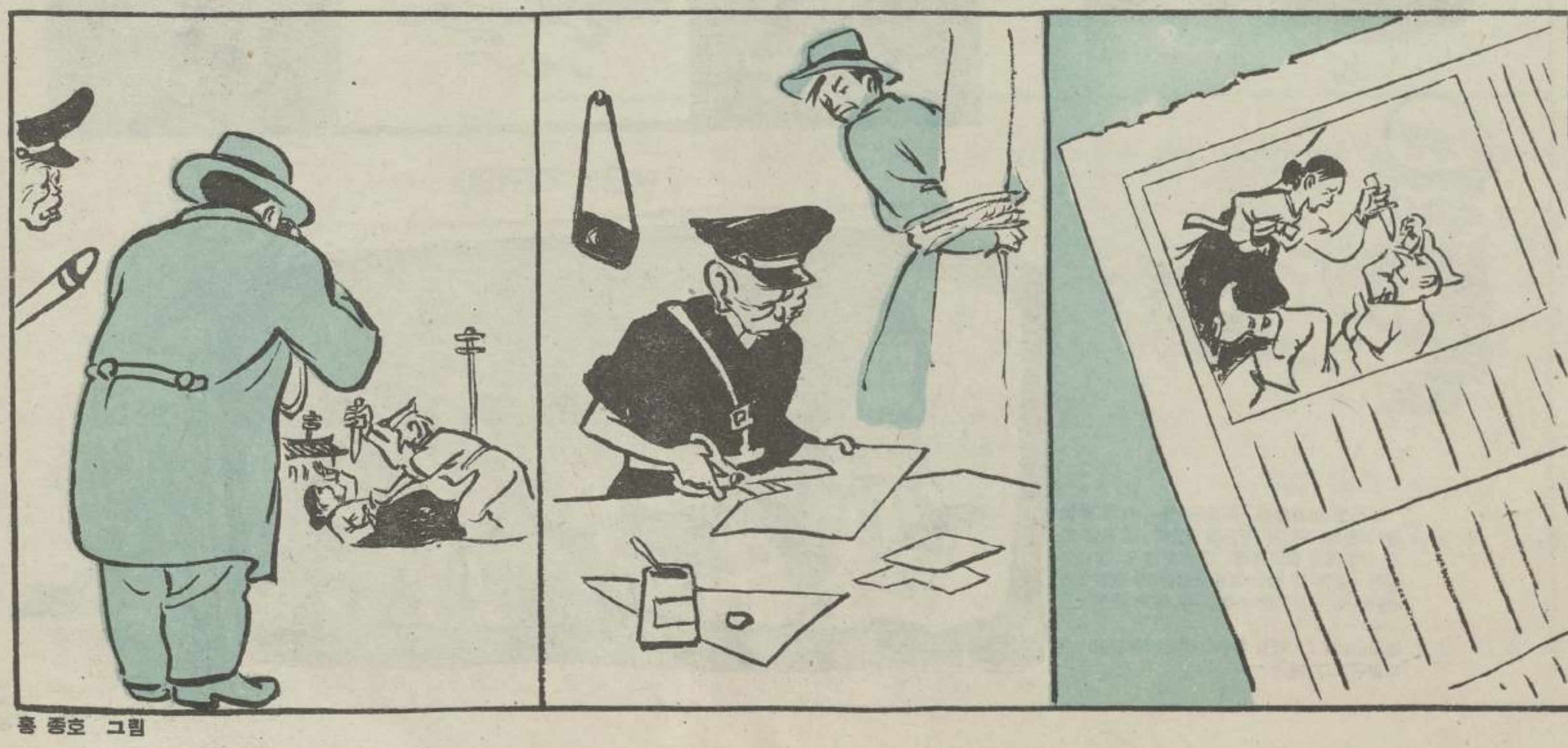


《생활 교육》

《반공 교육》

조 명식 그림

리승만의 《언론 자유》



홍 종호 그림

졸업은 실업

신 흥순

요 며칠 전에 서울 한강'가에서 어떤 로인 한 분이 방금 강물에서 건져 낸 청년의 시체를 안고 대성 통곡을 하고 있었다.

세상을 떠난 청년은 다름아닌 그 로인의 아들이다.

그는 생지옥인 남조선 현실을 저주한 나머지 원한을 품은 채 유서 한장을 남겨 놓고 한강에 몸을 던졌던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는 자기 생명을 자기 손으로 끊지 않으면 안되였던가? 거기에는 눈물겨운 사정과 기구한 곡절이 숨어 있다.

그의 아버지 박 로인은 서울에서 물 지게 장수로 늙었다. 자기는 비록 물 지게를 질 망정 외아들인 영식이만은 기어코 공부를 시켜 보려는 것이 일구 월심 그의 소망이였다.

그리하여 박 로인은 이를 악물고 주린 배를 졸라 매면서 등'골이 휘도록 한 지게라도 더 물 지게를 졌다. 한편 영식이 역시 아침 저녁 신문 배달도 하고 담배 장사도 해서 학비를 보태였다.

그리하여 영식이는 드디여 중학을 금년 봄에 간신히 졸업하게 되였으나 박 로인은 쇠약해져서 물장사도 하기 어렵게 되였다.

영식이는 교문을 나서자 일'자리를 구하려고 사면 팔방 돌아 다녀 보았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는 6백 6십여만의 실업자 대군이 일'자리를 못얻고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으며 대학 졸업을 하고도 취직을 못해 아우성을 치는 판에 중학교 졸업 간판쯤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형편이다.

세무원 약간명 채용하는데 무려 1천 여명의 응시자가 있었고 어느 관청의 사환 한 명 뽑는데 수 백명이 끌 싸움을 하는 것이 오늘 남조선의 현실이다.

미국 잉여 상품의 범람으로 이미 4천 여개 (1957년 현재)의 공장 기업소가 완전히 파산 몰락되였으며 그 나머지마저 원료와 동력, 자금 등의 부족으로 거의 문을 닫게 된데다가 괴뢰 정부의 전쟁 예산으로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관공서의 대량 감원이 실시되였으며 또한 농촌의 빈궁화로 말미암아 수백 만의 리농민이 류랑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취직이란 실로 하늘의 별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학교를 졸업하자 곧 실업자로 된 영식이는 일을 할래야 일 자리는 없고 다섯 식구가 당장 먹을 쌀이 없으며 게다가 아버지의 병환은 날로 더해만 가고, 약을 써 볼 돈도 없고— 그는 생각다 못해 안과 병원을 찾아 갔다.

《듣자니까 눈 이식 수술을 연구하느라고 눈알을 여기서 산다는데 이왕이면 내 눈알 하나를 사 주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사 주는 데가 없었다.

한편 이런 광고까지도 써 붙여 보았다.

《한 평생 고용살이라도 좋으니 나의 몸을 사 주시오, 우리 다섯 식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어떻게 된 셈인지 징병령장이 나왔다. 원래는 나이가 한 살 모자라는데 호적이 그렇게 되였다는 수작이였다.

굶주리고 있는 다섯 명의 생명을 집에 두고 놈들의 대포밥이 되기 위하여 총대를 잡을 생각은 없었다.

빈궁에 시달리고, 놈들에게 시달리고,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도 권리도 없이 소와 말처럼 사느니 보다는 죽엄으로써 청산하는 것이 나으리라고 그는 마침내 한강 깊은 물에 뛰여 들었던 것이다.

어찌 영식이 하나 뿐이랴! 오늘 남조선에는 생활고에 못이겨 인생의 모든 희망과 포부와 청춘을 버리고 애석하게도 세상을 버리는 사람들의 수는 날의 날마다 늘어만 가고 있다.

이것은 오직 미제의 식민지적 략탈과 노예 정책 때문이며 리 승만 도배의 매국 배족적 정책의 산물인 것이다.

류행어 만화 사전

《공산 명월탕》

《졸업 하나마나》

《오색 잡귀당》

남조선 인민들은 《자유당》을 《천하 무법당》이라고 하다가 최근에 《오색 잡귀당》으로 개칭하게 되였는데 그 리유는 리 승만이 같은 《로귀》에 잡아 먹는 《살인귀》 빨아먹는 《흡혈귀》 뺏아먹는 《략탈귀》 훔쳐 먹는 《도적귀》……

이래 저래 다 먹고 남은 것은 《빼다귀》 오색잡귀 《자유당》……

백 인균 그림

썩은 냄새 풍기는 미국

로 철

닮긴 닮았는데…

한 미국 억만 장자가 화가를 청해서 자기 초상화를 그렸다. 두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배를 불숙 내민 초상화이다.

억만 장자—자 어떻게 나를 좀 닮긴 닮았소?

—하고 그는 친구에게 그것을 보여 주었다.

친구—닮긴 닮았는데 다만 손이 닮지 않았구만요. 당신 손은 다른 사람 호주머니 속에 들어 가 있어야 할텐데….

뛰는 놈이 있으면 나는 놈도 있으니…

깽그가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은행 앞에서 내렸다.

그는 태연한 거름걸이로 은행 안에 들어갔다.

권총을 꺼내 들고 지배인을 위협했다.

《꼼짝 말아! 움직이면 쏜다. 몽땅 돈을 내 놔!》

깽은 돈을 한짐 지고 은행 대문을 유유히 걸어 나왔다.

그런데 승용차가 온데 간데 없어지고 말았다.

자동차 깽이 타고 달아난 것이다….

《미국식 인생 철학》

깽은 부유한 상인의 가슴에 권총을 겨누었다.

깽—손에 든 돈 뭉치를 내놓겠는가, 아니면 목숨을 내 놓겠는가?

상인—어서 내 이 목아지를 가져 가시오, 그러나 이 돈만은 안 되오. 이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목숨을 살 수 있으니까…》

실 토

탐정 소설 작가의 처—여보, 왜 당신은 일하시는데 나더러 온 밤중 옆에 있으라구 그러시오?

탐정 소설 작가—제발 옆에 서 있어 주오. 그러지 않고서는 너무 무서워서 나 혼자 이 무시무시한 살인 강도 사건을 쓸 수 없을 것 같소.

어학과 돈

교원—애들아, 어학은 아주 유용한 학문이란다…

학생—흥, 유용하긴 무어 유용해, 우리 아버지는 편지 한 장 똑똑히 쓰지 못해두 신문사의 사장 노릇을 하면서 돈만 팡팡 벌어 들이고 있는데….

미국식 어머니

아들—어머니, 어머니는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서랍 안에 가두구 있을 작정이야요?

어머니—내 귀여운 아들아! 두 주일만 참구 있어라, 응? 그러면 이런 일의 세계 기록을 세우게 될테니 우리들 사진이 큼직큼직하게 신문엘 나지 않겠니? 오! 이전 돈이란 말이다, 돈…!

예비 대책

갑—어제 나는 전망증을 고치려구 의사헌테 갔드랬네.

을—그래 의사가 뭐라든가?

갑—진찰하기 전에 의사는 우선 치료비를 내라고 그러데….

살인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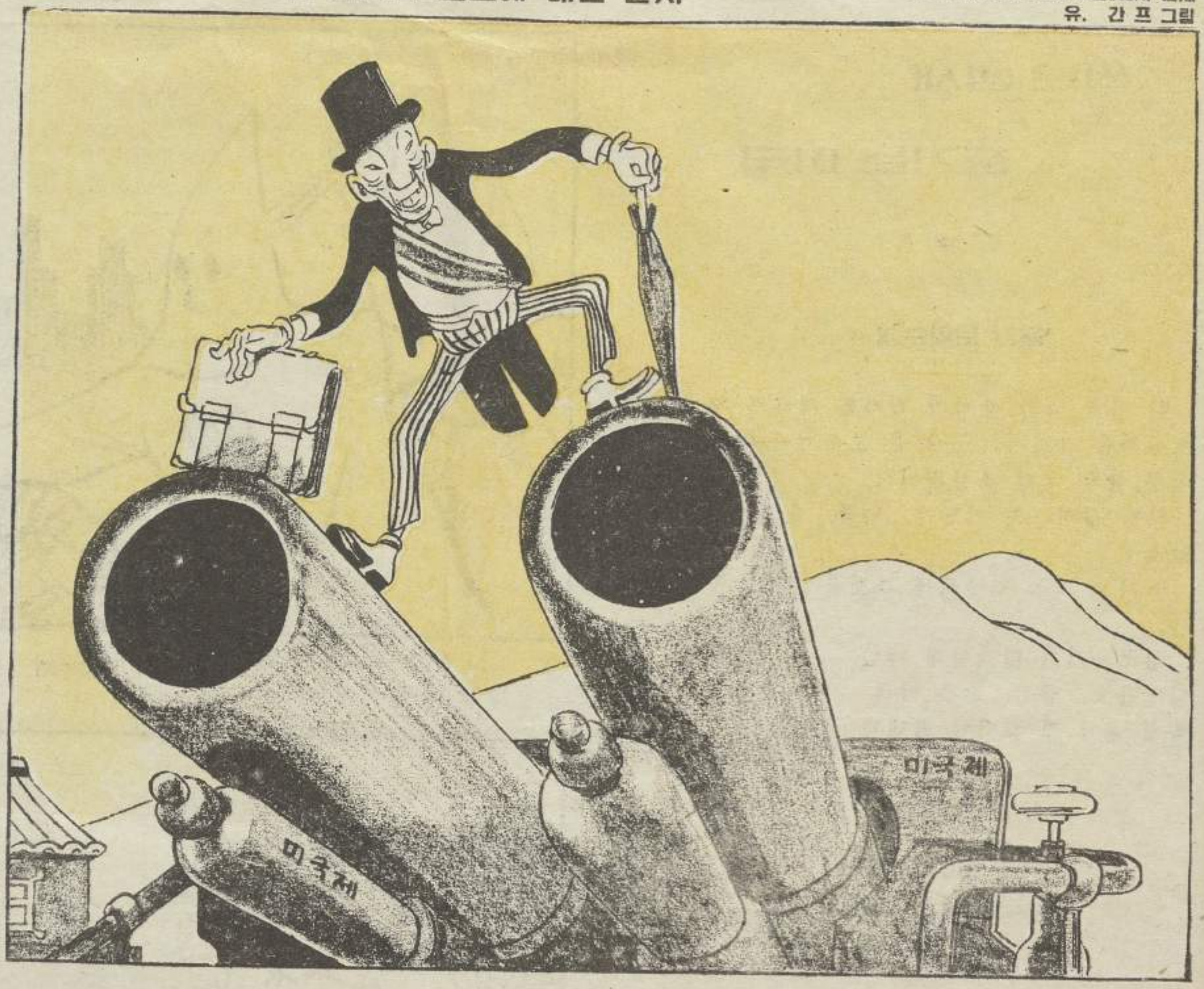
미국에서

원 광수 그림

남조선에서

리 승만의 보호에 대한 견지

쏘련 풍자 잡지 "끄로꼬질"에서 전재
유. 간 프 그림



리 승만은 조선으로부터의 일체 외국 군대의 철거와 민주주의적인 총선거를 실시할데 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제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다만 원자포의 보호 밑에서만 남조선의 <민주주의>가 개화할 수 있다고 언명하였다

단합된 힘

쏘련 풍자 잡지 "끄로꼬질"에서 전재
꾸끄리닉스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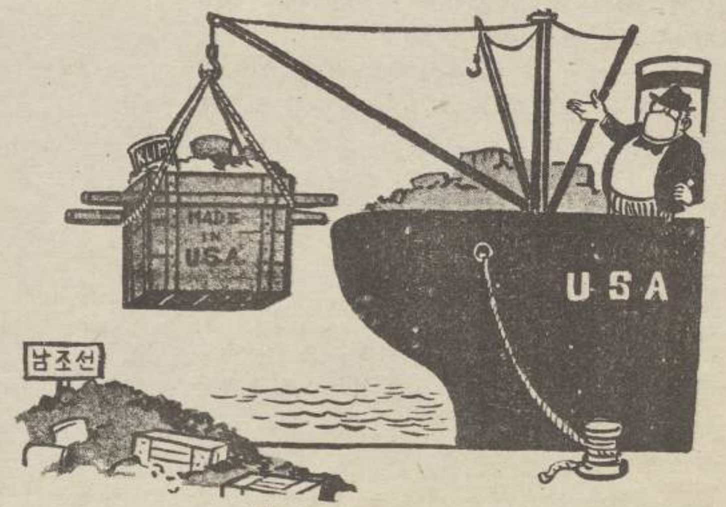
장 개석과 리 승만은 중국과 조선 인민을 반대하여 협동 작전 할 데 관하여 합의를 보았다

불균형적 멜대

중국 풍자 잡지 "만화"에서 전재
중황 그림

미국은 다른 곳에 내보낼 수 없는 상품을 남조선에 팔아 먹는다

중국 풍자 잡지 "만화"에서 전재
중황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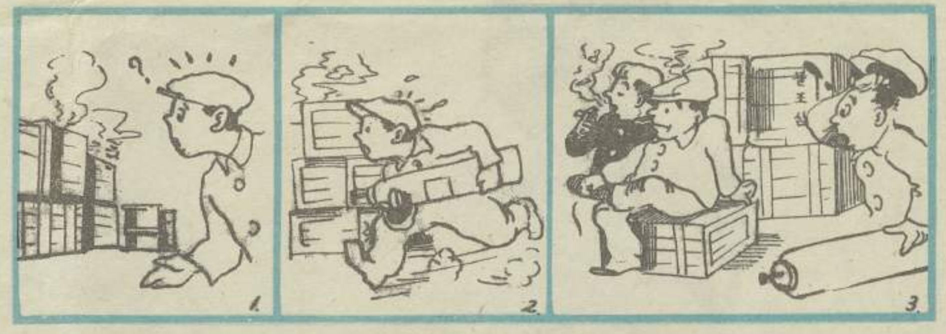


미국 쓰레기장

축산반의 《고상한》 청년

함남도 단천군 직절리 심 상기 그림

화재인줄 알았더니?!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류 광호 그림

"서로 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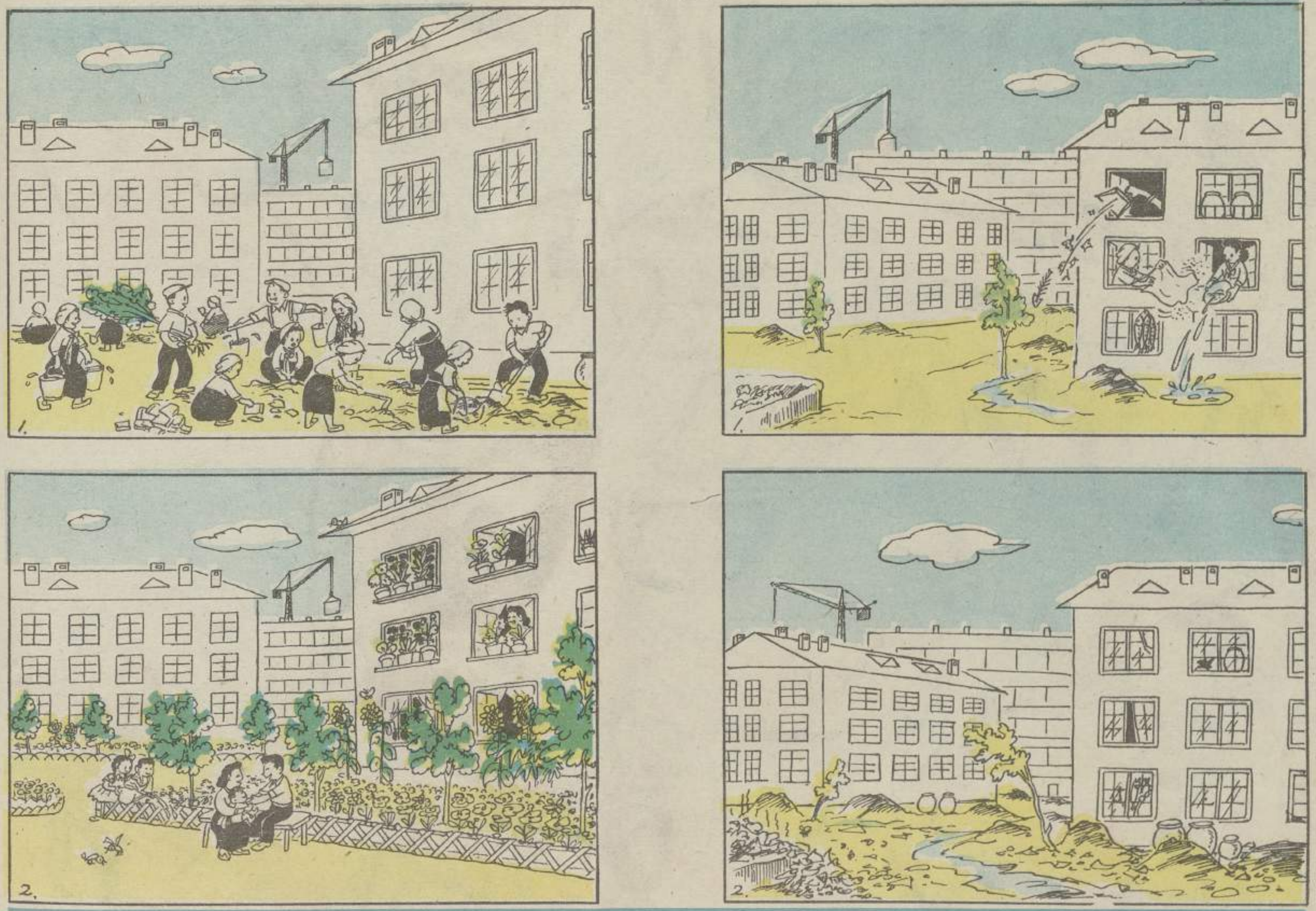
결혼 전

결혼 후

성진 13중학교 차 종락 그림

두 사택 마을

원 광수 그림



편집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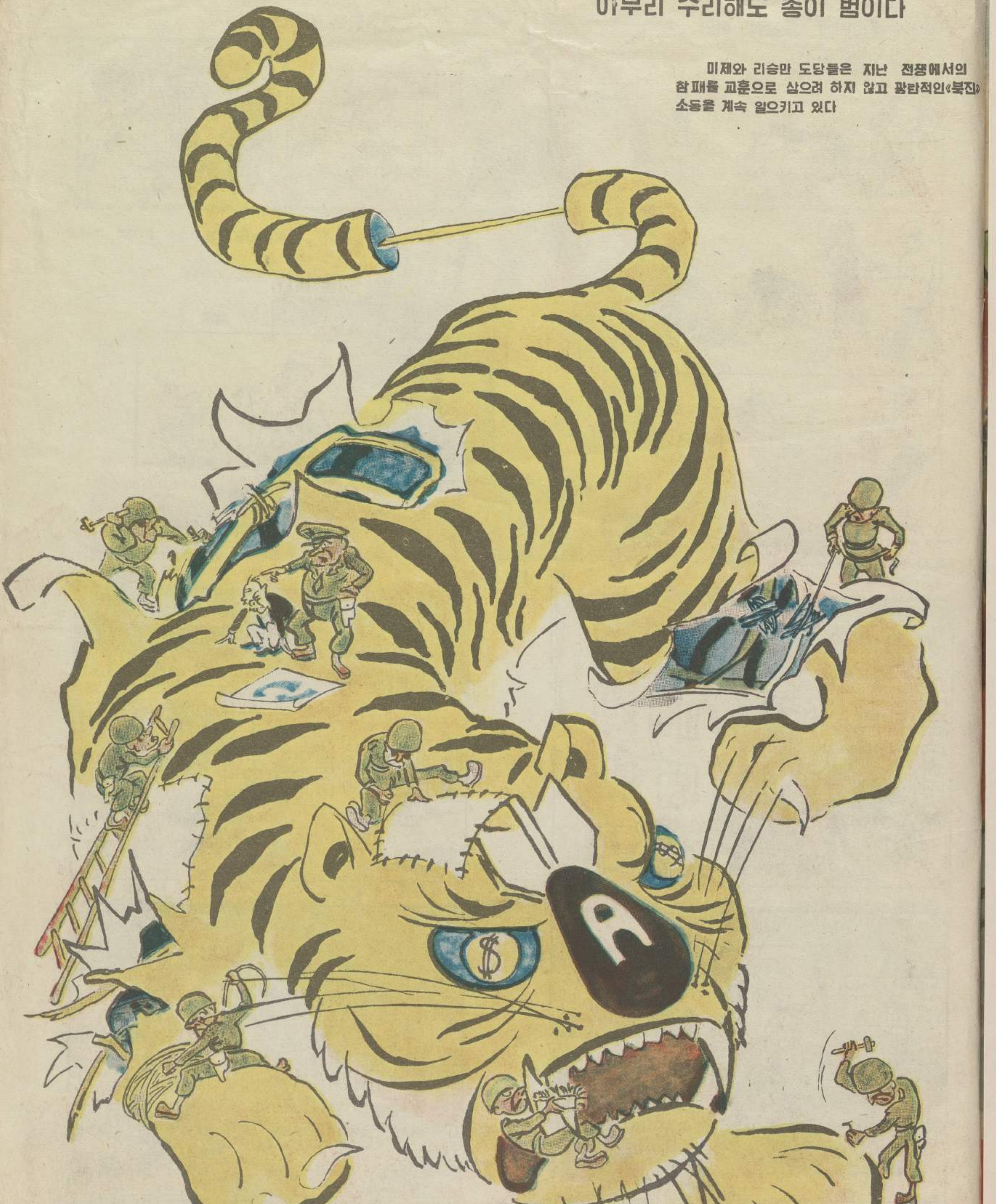
발 행 소 국 립 미 술 출 판 사
인 쇄 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4417
발 행 1 9 5 9. 6. 1 0

(값40전)

아무리 수리해도 종이 범이다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은 지난 전쟁에서의 참패를 교훈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광란적인《북진》소동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조 명식 그림